



SK이노베이션, 66개 협력사에 상생기금 23.6억 전달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28일 SK이노베이션이 SK올산 CLX에서 '2019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행복나눔기금' 47억2000만원 중 절반인 23억6000만원이 66개 협력사 구성원 총 4431명에 게 고루 전달됐다. 1%행복나눔기금' 구성원 기본급1% 기부와 회사 일대일 매칭그랜트를 통해 조성됐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이 협력사 구성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3대 중견기업연구원에 조병선 교수

중견기업연합회는 3대 중견기업연구원장에 조병선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조병선 신임 원장은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공법을 전공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공개 지원 선진화 방안 연구', '독일 사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독일 하든첸피언의 지속가능 성장요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 등 중견·중소기업 발전 전략 및 가



업승계 정책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발표했다. 조 원장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경희사이버대, 군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본격화 경희사이버대가 올해 '미래인간과학스쿨-공공안전관리전공, 재난방재과학전공' 신설을 계기로 군인 역량강화와 군 인재 양성 전문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6일 경희사이버대에 따르면,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8일 7군단과 군인 역량강화와 인재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인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연구예산총괄과장 최도영 ▷생명기초조정과장 김연
- ◆ **한국정보통신진흥원(NIA)** ▷본부장 ▷정책본부장 박원재 ▷지능형인프라본부장 이영로 ▷지능데이터본부장 오성탁 ▷공공데이터본부장 이현중 ▷디지털포용본부장 정부만 ▷글로벌협력본부장 오강탁 ▷실장 ▷감사실장 ▷이병하 ▷담당 ▷공공클라우드지원단장 김은주 ▷전자정부사업단장 이연우 ▷팀장 ▷인사평가팀장 황성욱 ▷정책기획팀장 이정아 ▷미래전략센터장 백인수 ▷ICT투자성과정센터장 최대규 ▷지능화법제도팀장 최인선 ▷인프라기획팀장 나성욱 ▷네트워크팀장 양중찬 ▷공공통신서비스팀장 김효준 ▷플랫폼기술팀장 김형순 ▷지능데이터기획팀장 이규엽 ▷지능데이터사업팀장 김성현 ▷지능데이터기반팀장 이윤진 ▷시데이터팀장 윤역수 ▷공공데이터기획팀장 신신애 ▷공공데이터활용팀장 이동철 ▷공공데이터개발팀장 정종열 ▷공공데이터품질팀장 정승호 ▷전자정부기획팀장 정준원 ▷전자정부성과관리팀장 김영식 ▷전자정부제도혁신팀장 시종익 ▷전자정부기반사업팀장 유주현 ▷교육문화팀장 한병호 ▷ICT융합컨설팅팀장 문재형 ▷디지털포용기획팀장 민성준 ▷디지털격차해소팀장 박중선 ▷디지털사회혁신팀장 류도 ▷디지털윤리팀장 남달근 ▷디지털과거존대응팀장 이영선 ▷글로벌ICT컨설팅팀장 고정민 ▷전자정부국제협력팀장 전홍구 ▷글로벌협력사업팀장 오현욱 ▷글로벌아카데미팀장 홍명하

부음

▲ 이동민씨 별세, 명해·현주씨 부친상, 강호균(한

화그룹 상무)씨 장인상 = 5일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 특1호실, 발인 8일, 장지 국립산청호국원, 055-214-1900
▲ 이정자씨 별세, 김문재(전 중앙중학교 교장)씨 배우자상, 김지나(롯데카드 마케팅부문장)·영지(두앤비 주식회사)·영나(제주MBC 작가)씨 모친상, 이송희(주부)씨 시모상 = 5일 오후 6시2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 8일 오전 6시, 장지 천주교 바다의 별 공원 묘지, 02-2227-7500
▲ 윤덕순씨 별세, 윤진호(전 대한항공 상무)씨 모친상, 6일 오전, 수원오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장지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영락동산, 031-640-9790
▲ 박상하(국제정구연맹 회장)씨 별세, 박소마·소연·찬국씨 부친상 = 5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 02-3410-3151
▲ 한복임씨 별세, 홍성조(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수신부장)씨 모친상 = 5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9시, 010-4000-1878
▲ 김동욱씨 별세, 나훈출(현대유리제조제빵원 대표)·상홍(주식회사 사람 대표)·영홍(웅인행정사 대표)·순홍·효진(울현초등학교 교감)·필순씨 모친상, 한봉수(한신생직업전문학교 대표)·조영원(자영업)·신동석(국민일보 편집부국장)씨 빙모상, 유난수·김순영(대한과학진흥회 이사)·주유정(웅인여초등학교 교사)씨 시모상 = 5일 당진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9시, 041-354-4444
▲ 노기병씨 별세, 노원섭(사업)·영섭(명진생명 대표이사)·민섭(에쓰오일 과장)·주섭(파이낸셜뉴스 부산취재본부장)·호섭(포스코 부장)씨 부친상, 노송미(차의과대학교 교수)·치권·치연씨 조부상 = 5일 오후 1시,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8일 오전 7시, 051-711-4400

“사랑의 블랙홀-두더지의 날”



진성오 소장
심리칼럼

십여 전에 나온 미국 영화 한 편이 있다. 한국 제목은 창의적인 기획자의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물리학과 인문학적 소양이 결합된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지어졌다. 원제는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다. 직역하면 ‘두더지의 날’ 뭐 이런 제목이 된다.

최근 영화들에서 자주 나오는 소위 ‘타임 루프’의 옛날 영화로 생각되지만 영화가 주는 교훈은 필자가 읽은 어떤 불경보다 불교적이다. 혹시 감독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영화이다.

한 방송사의 기상 캐스터가 봄을 알린다고 하는 두더지의 예언을 듣기 위해 죽어가 열리는 시골로 찾아간다. 거기서 참신한 느낌으로 일기 예보도 하며 마을 행사를 알리는 방송을 한다. 그러나 기상 캐스터는 삶의 일상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모든 것이 지겹고 무기력한 남자 주인공으로 죽지 못해 사는 매일의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루한 삶을 저주하며 잠이 든다. 다음날이 되었지만 지루한 삶을 한탄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 벌은 하루가 무한대로 반복되는 시간 루프였다. 끝없이 매일이 영원히 반복된다.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똑같이 벌어지고 당사자만이 사실을 안다. 이것은 마치 한 부분의 영상을 무한 반복해서 보는 것이

고 니체의 말대로 ‘영원회귀’인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인 아침 6시에 같은 라디오 방송을 알리는 알람이 켜진다. 주인공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억겁의 시간을 무한 회귀되는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다. 아마 사람들도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주인공처럼 행동할 것이다. 온갖 짓을 다한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필자라도 매일이 어김없이 같은 일상이 한 번도 빠짐없이 무한 반복됨을 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다. 주인공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듯 특별한 행동을 다한다. 정확하게 같은 물웅덩이에 발을 밟게 되고 길을 건너 가던 중 노숙자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매일 본다. 그리고 똑 같은 방송 촬영을 하고 그렇게 지겨운 일상은 무한 반복된다. 매일이 똑같다.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히 반복되는 하루이다. 다만, 주인공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딱 하루만으로 다시 모든 것이 새로 다시 세팅된다.

지극한 반복에 지쳐서 은행을 털고, 동네의 미인들을 유혹하여 하룻밤을 자고-말 그대로 하룻밤이다. 심지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차를 몰고 절벽으로 돌진한다. 하지만 그래도 잔인하게 어김없이 다음날 6시에 같은 라디오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을 시작하는 것이다. 죽어도 이 삶의 무한 반복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자포자기도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무한 반복이니 무엇을 하던지 정확하게 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는다.

영원의 회귀다. 그러던 주인공은 자신이 이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선행을 행하기 시작한다. 죽을 줄 알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킨 노숙자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고 식당에서 떨어뜨려 깨질 수 있는 컵을 미리 알고 막아주며 자신을 수억 번을 봤을 것 같은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가서 매번 첫 수업을 등록하고 피아노를 배운다. 결국, 피아노 선생님은 본인만 모를 뿐 이미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남자 주인공을 매번 처음 신입생으로 맞이하여 레슨을 하기도 한다.

더 많은 이야기가 영화에 있다. 나머지 내용은 독자들이 직접 보기를 권하고 필자는 영화를 보면서 ‘이거 어디선가 많이 읽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네?’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따져보았다. 곧 깨달은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의 경험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윤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윤회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윤회라는 것이 같은 시간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우리가 영원히 같은 경험을 마치 새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고통 받는 것이라면 이 영화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오마주한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어딘가에 앉아서 도를 닦거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해야 하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는 듯 하지만 영화는 무한 영겁의 시간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타인을 위한 사랑과 봉사의 행동을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궁극적인 부처님의 말씀 아닐까?

그나저나, 봄을 알려주는 두더지가 한 국에도 있으면 믿고 싶다. 여기는 언제쯤 봄이 오는지. /당신의마음연구소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베트남 학교 찾아 사회공헌 펼쳐

호치민 사무소 직원들과 방문 학용품 등 교육용 기자재 기증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이대훈 행장과 호치민 사무소 직원들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웅옌티밍카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이 행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60여명에게 학용품, 교복 등을 전달하고, 학교에 TV 등 교육용 기자재를 기증했다.

이 행장은 “물질이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웅옌티밍카이 초등학교와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베트남에 도착한 이 행장은 한국계 기업 세아제강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경영 환경을 점검



이대훈 NH농협은행장(맨뒷줄 가운데)이 지난 1일 베트남 호치민시 웅옌티밍카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사랑나눔행사 후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했다. 또 호치민 인민위원회를 방문해 호치민 지점 인가 취득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베트남 남부 시장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이와 함께 이 행장은 농협은행의 자회사인 캄보디아, 미얀마 법인장들과 현장

경영의 시간을 갖고, 동남아 금융라인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 베트남 하노이 지점을 개점했고, 지난해 11월 호치민 사무소를 개소, 현재 지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100회 돌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인공지능(AI) 대화엔진 전문기업인 페르소나시스템을 방문해 100번째 현장자문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페르소나시스템 유승재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했으며, 신청 요건, 관련 규제, 준비 필

요사항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금감원은 핀테크 분야의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지난 2017년 6월부터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

상으로 제공하며, 창업단계에서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일반 현장자문(최초 자문)이 77회로 가장 많았으며 ▲관계형 자문(추가자문) 14회 ▲지정대리인 지정업체 멘토링 9회 등이다.

자문내용은 금융규제 자문이 78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안상미 기자